

류현진, 2년 연속 MLB 사이영상 후보

마에다 겐타·세인 비버와 AL 사이영상 후보 3인
사이영상 후보 동양인 투수 3명 올라와 눈길 끌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에 올랐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는 3일(한국시간) 2020 메이저리그(MLB) 양대리그 사이영상 후보를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후보 3인에 류현진과 함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세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뽑혔다.
지난해 4년 8000만달러의 거액을 받고 토론토로 무대를 옮긴 류현진은 올해 12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5

승2패 평균자책점 2.69로 에이스 역할을 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활약을 앞세워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던 류현진은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에 올랐다.
내셔널리그에서 사이영상 후보로는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시카고 컵스)와 함께 트레버 바우워(신시내티 레즈),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이 선정됐다.
다르빗슈는 올해 12경기에 선발



등판해 8승3패 평균자책점 2.01을 기록해 강력한 사이영상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승 1위, 평균자책점 2위, 탈삼진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사이영상 후보에 동양인 투수가 3명이나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뉴시스

손흥민, ‘10월 EPL 베스트11’

英 통계사이트 선정, 10월에만 4골 2도움 기록

‘손세이셔널’ 손흥민(28·토트넘)이 영국 축구 통계사이트가 선정한 10월 EPL 베스트11에 뽑혔다.
영국의 축구통계전문 매체인 후스 코어드는 최근 EPL 평점을 기준으로 선정한 10월 베스트11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4-4-2 포메이션으로 바탕으로 한 베스트11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이 평점 9점으로 11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손흥민은 8.4점으로 뒤를 이었다. 베스트11 최전방 투톱엔 케인과 올리에 왓킨스(아스톤빌라)이 올랐으며 좌우 측면엔 손흥민과 하메스 로드리게스(에버턴)이 포진하고 중앙 미드필더는 페드로 네투(울버햄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포백 수비에선 첼시 소속 선수 커트



주마, 티아구 실바, 벤 칠웰 등 3명이 포함됐고, 토트넘의 세르조 오리에가 오른쪽 수비수에 자리했다. 골키퍼는 칼 달로우(뉴캐슬 유나이티드)다.
손흥민은 10월 EPL 4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올렸다. 또 10월에만 4경기 연속골 행진을 달렸다.
올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골 행진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은 도미니 칼버트-루윈(에버턴)과 함께 EPL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김미희기자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금빛 행진 “경사났네”

펜싱팀·스쿼시팀·근대5종팀·우슈팀 전국대회 입상…금 5개 포함 총 15개 메달 획득



전남도청 펜싱부. (왼쪽부터 김용을 감독, 박한휘, 김지현, 최세빈, 유진실, 유단우, 김향은, 김시은, 김수민 코치)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에서 줄줄이 입상하며 태극마크까지 가슴에 달았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총감독 안운준) 펜싱팀, 스쿼시팀, 근대5종팀, 우슈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비롯하여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근대5종팀이 승진보를 올렸다.
근대5종팀은 지난달 24일부터 1일

까지 해남에서 열린 제7회 한국실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대회에서 서창완이 2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현 국가대표인 서창완은 남일부 근대5종 개인전에서 1위에 올랐고, 박상구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일부에서는 정민지, 심채나, 손예진이 출전한 근대4종 단체전에서 은

메달을 획득했고, 정민지는 개인전과, 공인준과 함께 출전한 혼성계주에서도 각각 3위에 올랐다.
근대5종팀의 금빛 낭보에 이어 펜싱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펜싱팀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0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전 예매 결승에 출전한 유진실이 신현아(부산시청)를 13:12로 꺾고 2021년 국가대표

에 선발됐다. 사브르팀의 최세빈도 개인전 결승에 출전해 전은혜(대전시청)에 아쉽게 9:15로 패했지만 은메달을 획득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국가대표 양연수가 포진한 스쿼시팀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20회 회장배 한국 스쿼시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여일부에서 양연수가 결승에서 김가혜(광주광역시체육회)에 아쉽게 0:3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박은옥은 4강전에서 양연수에게 패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32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 우슈팀도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회장배 남일부 산타 +85kg 유영록과 -56kg 윤운진이 금메달을, -70kg 강영식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부 남권에 출전한 김영준과 태극권 장민규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슈팀 선수 6명 전원이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을 대표하는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금빛 낭보는 올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도 힘든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의 보상이다”며, “전남체육회는 내년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도내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FC서울-광주FC 유스팀, 주니어 U-18 우승

프로축구 FC서울 18세 이하(U-18) 유스팀 오산고와 광주FC U-18팀 금호고가 2020 K리그 주니어 U-18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부권역인 A조에 속한 서울 U-18팀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구리시 GS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수원 FC U-18팀과의 경기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서울 U-18팀은 8승 2무 패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권역인 B조에선 광주 U-18팀이 우승했다. 광주 U-18팀은 같은 날

송죽구장에서 열린 전남 U-18팀(광양제철고)과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했지만, 최종 승점 21(6승3무1패)로 2위 전북 U-18팀(전주영성고)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K리그 주니어 U-18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6월 개막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했다.

김민정기자



강진군야구협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성료’

제14회 강진군야구연합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월 25일과 11월 1일 2일간 강진야구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된 대회는 강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진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강진 5개팀 150여 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지난달 25일에는 예선전이 개최돼 4개 팀(강진자이언츠, 천하무적, 강진해

오름, 강진맥)이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며, 11월 1일에는 준결승전 및 결승전을 진행했다. ‘강진맥’팀이 우승을, ‘강진자이언츠’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재영 강진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 앞으로 강진군 동호인들의 유대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전국대회에서 두각

김태연(대덕초6년)·유한서(회진초6년)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인 복식 우승

장흥군 소프트테니스 꿈나무들이 최근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제41회 회장이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장흥군 초등부 대덕초 김태연(6학년)과 회진초 유한서(6학년)의 개인 복식조가 최종 우승을 하였다.
전북 순창군은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큼 그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소년 전사들이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대회 후 우승팀의 주장인 김태연 양은 소프트테니스의 명문학교인 순창여중에 스카우 되어 진학이 결정되기도 했다.
소프트테니스로 지칭되는 이 구기



종목은 예년에는 정구로 불리웠다. 장흥군은 전국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 받을만큼 선수층이 두텁고 실력이 월등한 구기 종목으로 알려져 왔다.
비인기 종목이기는 했지만 장흥군의 장흥여중과 장평중의 정구부는 가

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받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도맡아 할 만큼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전통의 소프트테니스 종목이 근간에는 대덕초등학교와 회진초등학교 연합팀에서 부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덕초등학교(교장 전경문)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은 감독교사인 김햇살 운동부 지도자 김세환과 6학년에 재학 중인 주상 김태연과 선수들이 주축하는 실력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수상 이력은 △제60-61회 유소년 정구대회 2년 연속 개인복식 3위 대덕초 김태연 △제42-44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3년 연속 전남 여자 단체 1위 △2018-2019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2년 연속 여자 단체 1위 △2018-2019 2년 연속 전국소년체전 전라남도 대표 주축학교로 출전하는 등의 성적을 보여 주었다.
김태연 선수는 대덕 체육계의 유명 인사인 홍성수(전,배구 육상선수, 장흥군민의 상, 체육부문 수상, 장흥문화원이사)의 외손녀이자 아버지인 김진영과 어머니인 홍유리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어서 3대를 이어가는 체육 집안의 실력을 입증해 보인 것이었다.
기동취재본부

“추신수, 빅리그서 더 뛸 수 있다”

FA랭킹 55위 이름 올려

‘주추 트레이н’ 추신수(39)가 내년에도 메이저리그(MLB)에서 현역 선수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는 3일(한국시간)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1위부터 60위까지 선수를 발표했다.
추신수는 FA랭킹에서 55위에 이름을 올렸다.
CBS스포츠는 “추신수가 메이

저리그에서 2년 정도 더 뛰고 싶어한다”며 “30대 후반이지만 선구안, 배팅 능력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다. 클립하우스 리더의 면모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추신수는 지명타자로 텍사스 레인저스, 오슬랜드 애슬레틱스, 휴스턴 애스트로에 어울리는 선수다”고 말했다.
올해 텍사스에서 7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치른 추신수는 타율 0.236에 5홈런 15타점 13 득점을 기록했다.